

개방화 시대의 국제적인 건설 전문가를 꿈꾸며 ...



1차 CM과정 직원들

쌍용건설은 국내외건설시장에서 쌓은 건설 노하우를 극대화하고 Cost-effective Construction Management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21세기 건설연구실과 함께 Construction Management(CM) 전문인력양성과정을 3차에 걸쳐 개설했다.
CM 과정의 교육기간은 8개월간으로 1차(95. 9/1~96. 4/30), 2차(96. 6/1~97. 1/30), 3차(97. 5/1~97. 12/30)로 나누어 실시된다.
1차에는 근속연수 2년 이상, TOEIC 600점 이상, 시공경험이 있는 직원중 본부장 추천을 통해 유명근 차장(김포대교 현장), 문보현 차장(건축 1부), 이윤수 과장(특수기술개발부), 이중원 대리(주택기술부)가 선발되어 교육을 받고 있다. CM 전문인력양성과정의 현재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본다.

제 1학기(95. 9/1~11/30), 해외연수(95. 12/1~96. 1/31), 제 2학기(96. 2/1~4/30)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는 1차 CM과정에는 쌍용건설(4명)과 동아건설(4명) 직원이 함께 수강하고 있다. 1학기인 요즘엔 월요일 오전 9시부터 금요일 오후 5시까지 5개의 전문과목과 영작 및 영어회화시간, 그리고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저녁에는 외부 초청 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이 과정은 전 교육의 영어강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국제화 시대에 걸맞게 부부동반 생활화된 외국인과의 관습에서 오는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특강 시간에는 부인을 동반하도록 하고 있다.

일터와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는 대학 캠퍼스 생활에 대한 질투어린 질문에 이 과정의 참가자들은 회사에 다니는 것보다 스트레스가 더 심하다고 한다. 강도높은 교육과 연일 계속되는 리포트, 교육후면 으레 요구되는 변화에 대한 주위의 기대로 24시간을 완전 가동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광의의 건설업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향후 CM제도가 도입되고 회사의 참여가 있을시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다.

CM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돋기 위해 이 과정에 참가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설문을 받았다. 그 내용을 살펴본다.

CM과정에 참가하면서 느낀 점

- 건설업을 한계층위에서 볼 수 있는 기회로 지금

까지는 건설업의 작은 한 분야에만 전념했다는 생각이 든다.

- 시공위주로만 운영되어오던 기존의 체계에서 앞으로 변화해야할 새로운 체계를 볼 수 있는 시각을 키우고 있다.(외국 건설업체의 사업영역과 국내 건설업체의 위상 비교 가능)

- 본사나 현장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좀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구성된 학문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이다.

- 입찰, 계약, 설계, 시공, 유지보수 등 건설부분에 대해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이다.
- 교육강도가 높아 과도한 과제물 및 Reading Material로 초기에는 적응하기 어려웠다.
- 건설자료의 체계적인 정리방법, 문제점 분석 및 학습습관에 도움이 된다.
- CM의 의의에 비해 현재는 일부 영역에 국한된 느낌이다. 앞으로 더욱 더 많은 분야로의 접근 노력이 필요하다.

1학기(95. 9/1~11/30) 전문과목 및 교육목표

전문과목	교수	목표
건설업에서의 계량적 방법 (Quantitative Methods in Construction)	김용수 교수 (중앙대 건축공학과)	Quantitative Methods의 이론들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실제 프로젝트에의 적용 및 응용
공정관리 (Scheduling & Control)	이용일 교수 (인하대 토목공학과)	Construction Scheduling & Control에 관련된 기본이론 및 기법의 이해와 실제 프로젝트 Management에의 적용
계약과 분규 대처방안 (Contract & Claim I)	백준홍 교수 (연세대 건축공학과)	국내·국제 계약법규의 이해, 건설사업계약의 전략, 체계에 대한 연구, 클레임 관리, 분규조정의 이해
건설업에서의 생산성 향상 (Management Improvement in Construction)	김예상 교수 (성균관대 건축공학과)	기업경영의 합리화, 현장관리의 체계화와 관련한 건설업의 생산성 향상, 인적 자원관리, 건설업 경영전략의 이해와 건설업 활동에의 활용방안 연구
지반 및 기초공학 (Soil Mechanics and Foundation Engineering)	김동수 교수 (한국과학기술원 토목공학과)	지반공학이론과 관련공법의 이해 및 실무 적용



20세기 중반 이후로 건설산업에 있어 시공자(General Contractor)가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공사를 수행하던 종래 방식만으로는 발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여러가지 변화가 일어났다.

- 건설프로젝트가 대규모화되고 첨단기술(Hi-tech) 프로젝트의 수가 증가되었다.
- 타산업분야의 발전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그에 따른 Lead-time이 단축되어 건설 프로젝트의 공기단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 공사의 대형화와 물가상승 등으로 자금압

박이 심화되어 공사비 절감의 필요성이 커졌다.

- 품질고도화에 대한 요구가 급증했다. 따라서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모두에게 위험부담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러한 요구들을 전문적인 공사관리기능을 통해 해결해줄 수 있는 CM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CM의 정의

CM이란 건설공사의 사전계획(Conceptual Planning), 예비설계(Predesign),

- 과목별 강의 내용이 현실을 감안할 때 건설 실무에 적용하기에는 이론에 머무를 수 밖에 없는 내용이 적지 않다.

다음 차수 참가자들을 위한 조언

- 과정의 특성상(영어로 수업진행, 영문 교재 및 자료, 리포트) TOEIC 점수상의 요건뿐만 아니라 실제 회화가 가능해야 한다.
- 빠듯한 회사생활을 벗어나 공부도 하며 여유있는 시간을 계획하는 사람은 신청하지 않는 것이 좋다.(12시 이전에는 취침 불가)
- 컴퓨터에 능숙하지는 못하더라도 친숙해야 한다.
- 특히 현장경험은 많을수록 좋다.
- 강의시간중에 나오는 이론에 대한 실무적 용상의 타당성, 가능성 등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위해 건설 전분야(설계, 시공, 입찰)에 걸친 많은 경험이 요구된다.

결과에 대한 불안은 언제나 시작을 망설이게 한다. 사전지식은 그 불안을 다소 감소시킬 수 있으리라.

미래 참가자들에게 정보제공을 위해 협조해준, 「처음」이라는 짐을 안고 이미 출발선을 떠난 1차 참가자들에게 성원을 보낸다. S

시공(Construction) 단계 등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대상물의 기간(Time), 금액(Cost), 품질(Quality) 등의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현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기법들의 조합체라 정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문공사관리자(Construction Manager)는 시공과정이나 설계과정에 대한 지식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의 기본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CM 전문회사의 경우 이를 각부분을 좀더 세분하여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들로 구성된다.

추위도 녹일듯한 열기 가득

1995년 11월 8일, 올들어 날씨가 갑자기 떨어졌다.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연세대 공과대학 3층 강의실에 가까스로 도착.

CM (Construction Management) 전문인력양성과정중에 있는 쌍용건설과 동아건설의 직원 8명은 백준홍 교수의 열띤 강의를 듣고 있다.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연속 '계약과 분규 대처방안 I' 시간. 강의는 영어로만 진행되며 이미 배부된 교재와 미국의 잡지에 실린 건설관련 기사에 대한 이해 및 분석으로 이루어진다. 다양한 건설용어와 그에 맞물린 경제동향 등 요구되는 지식의 분야는 넓다.



'Construction is human business'라는 대명제 아래 건설시장이 개방되었을 때 전문가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은 무엇보다 사람을 잘 다루는 일. 그것도 언어와 사고가 각기 다른 여러나라 사람들을 상대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일을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 강의의 주요 골자이다.

CM 매니저를 사령관(Commander-in-chief)으로 비유하는 강의실은 흡사 전쟁터와 같은 열기에 휩싸인다. 경제전쟁이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을 정도. CM 과정은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전법을 가르치는 장(場)이다. (二)